http://doi.org/10.34227/tjocc.2020..19.31

독서당(讀書堂)의 독서문화사적 의미와 활용 방안 연구

정윤희*, 김민주**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 인재를 길러낸 '독서당(讀書堂)'의 독서문화사적 의미와 현대적 활용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 연구를 통하여 독서당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 현존했던 독서당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현장 답사를 통하여 알아보고 활용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인재를 길러냈던 독서당의 유래가 도로명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한남역교차로에서 성동구 행당동 응봉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독서당로'이다. 독서당로의 도로명은 한성부 두모방 두모리(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했던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에서 유래한다.

독서당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세종에서 영조까지 약 340년간 존속했던 기관으로 왕이 국정운영을 위한 철학으로서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점이다. 독서당은 좋은 책이 모이는 도서관의 기능을 했으며, 인재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독서당에서 책을 읽는 인재들이 책을 집필하여 당시의 지식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며, 국가가 우수한 인재양성을 매우 중요시 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독서당이 실제 위치한 현장을 답사하여 독서당이 어떤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지, 독서당의 계승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독서당이 있었던 지자체들이 독서문화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독서당으로 활용되었던 곳은 진관사, 장의사, 남호독서당, 정업원, 동호독서당, 한강별영이다. 표석만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독서당의 역사적 의미를 활용하여 지역민들이 독서문

* 제1저자 : 책문화네트워크 대표(문학 박사)
** 공동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객원교수
접수일(2020년 7월 20일), 게재 확정일(2020년 8월 4일)

화에 대한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토건 개발로 인해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우리의 전통문화 역사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유산을 현대인의 삶의 질과 연결시키는 다양한 모색이 요구된다.

주제어: 독서당, 독서당로, 독서문화, 지역문화, 전통문화콘텐츠, 책문화생태계

I. 서 론

본 연구는 독서문화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역사적 사례를 찾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의 '독서당(讀書堂)'을 중심으로 독서당의 의미와 현대적 활용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세종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도입하여 집에서 일정기간 동안 독서할 수 있는 휴가를 주었고, 독서전문기구인 독서당(讀書堂)을 설립하여 인재들이 책을 읽고 책을 집필하며 교류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중국에서 분서갱유를 하고 문화혁명을 하면서 책과 문화를 탄압했던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 선조들이 지탱해 온 책과 독서문화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조선시대의 인재를 길러냈던 독서당의 유래가 도로명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한남역교차로에서 성동구 행당동 응봉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도로의 이름이 바로 '독서당로'이다. 독서당로의 도로명은 한성부 두모방 두모리(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했던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에서 유래한다. 한남역(서울 용산구)과 응봉사거리(서울 성동구)를 잇는 도로이며 총거리는 4.2km이다.[1] 독서당로 북쪽으로는 남산과 매봉산이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른다.

1) 네이버 길찾기로 독서당로를 검색하면 4.2km로 나온다.

〈지도 1〉 독서당로 위치
주: 서울 용산구 한남역교차로 ↔ 서울 성동구 응봉사거리, 총거리 4.2km
출처: 네이버지도검색

독서당로는 1985년 2월 5일에 개통되었다.[2] 현재 독서당로는 고가의 주택과 아파트, 외국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미술관,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문화의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3] 현재 독서당로는 이름만 남아 있다고 할 정도로 독서당의 고유한 의미는 많이 사라졌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독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독서캠페인을 벌이고 독서축제를 하고 있지만 독서의 본질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읽기, 쓰기, 사유하기 등 인간 본연의 정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4] 조선시대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고 양서가 모이는 도서관의

2) 나무위키(https://namu.wiki/w/%EB%8F%85%EC%84%9C%EB%8B%B9%EB%A1%9C)에 근거한 시점이다.

3) 신동엽 씨가 진행하는 tvN의 프로그램 '수요미식회'에서는 독서당로에 소재한 맛집을 소개했다.

4) 정윤희,「출판 · 독서생태계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한 책문화생태계 모델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역할을 했으며 독서를 바탕으로 책을 집필했던 독서당의 기능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유산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책문화의 계승이 요구된다.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독서당의 좋은 취지가 지역문화에서 발현된다면 독서문화의 상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산티아고가 전 세계인들이 걷고 싶어 하는 관광자원으로 발전하였듯이, 독서당을 중심으로 한 독서당로를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한국의 독서문화의 역사를 국내 및 해외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서당 관련 연구의 흐름과 특징, 독서당의 의미와 시사점, 독서당의 계승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독서당 선행연구를 통하여 그 의미와 시사점을 밝혀내고, 독서당이 실제 있었던 현장을 답사함으로써 독서당의 역사적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고찰을 통해 본 독서당의 의미

1. 독서당의 역사

독서당은 세종 8년(1426년)에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하도록 사가독서제를 실시하는데서 유래하였으며, 영조 때 폐지될 때까지 340여 년간 유지되었다.[5] 젊은 나이에 과거를 통해 관리에 임용된 우수한 인재들이 업무에 시달리느라 학문과 독서에서 멀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은 우수한 젊은 인재를 선발하여 일정기간 직무에서 벗어나 독서에만 전념케 하는 독서제도를 창안했다. 성종 시기에 유학자들이 절에 가서 독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절을 금하고 집에서 독서하도록 하였으나 집에서 하는 독서에 방해 요인이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신하들 사이에서 이어지자 성종은 다시 산사(山寺)

5) 서범종, 「조선시대 독서당의 교육학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11쪽.

에서 독서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독서를 위한 전용 공간인 '독서당'을 건축하여 그곳에서 독서를 하게 하였다.[6)]

독서당은 조선시대에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건립한 전문 독서 및 연구기관으로서 '호당(湖堂)'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으며 독서당의 역할을 한 곳은 장의사, 진관사, 남호독서당, 동호독서당으로 알려져 있다. 사가독서 공간이었던 장의사(藏義寺)[7)]에서 시작되어 세종(1442년) 때 잠시 진관사(津寬寺)[8)]로 옮겼다가 다시 장의사에서 성종7년(1476년)에 사가독서를 재개하면서 독서당으로 정착했다. 성종23년(1492년)에 독서에 집중하기 위한 공간으로 독서당을 건립하였는데 바로 남호독서당(南湖讀書堂)이다. 남호독서당은 지금의 마포 한강변에 있던 귀후서(歸厚署) 뒷쪽 언덕의 사찰이었다고 하며, 이 절을 20칸 정도로 확장하여 독서당을 만들었다. 남호독서당에서는 1495년(연산군 1년)부터 1498년까지 독서당으로 활용하였으나, 갑자사화(1504년)의 여파로 홍문관과 함께 독서당도 폐쇄되었다. 이 후 중종은 독서당 취지를 다시 이어나갔다. 숭인동에 있었던 정업원을 독서당으로 활용하였으나 독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중종 12년(1517년)에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이 건립되면서 선조 말까지 독서당이 활발하게 운영된다. 동호독서당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전까지 75년간 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곳이다.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즉위년(1608년)까지 17년간 독서당이 다시 재개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강별영을 독서당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인조 및 효종 시대로 이어지면서 인재 선발과정의 불공정 등 운영부실로 결국 영조49년(1773년)에

---

6) 최선경, 「조선시대 사가독서제를 모델로 한 대학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 『사고와 표현』, 11권 1호, 2018, 97-98쪽.

7) 장의사는 서울 종로구 신영동 서울세검정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던 절인데. 지금은 보물 제235호로 지정된 당간지주(幢竿支柱)만이 남아 있다.

8) 고려 현종이 승려 진관대사를 위해 1011년 창건된 북한산(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사찰. 6.25때 나한전 등 3동만 남기고 모두 소실되었는데, 1964년 최진관 비구니가 재건을 추진했다.

독서당이 폐지되면서 그 구실을 잃게 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정조 때 실시한 초계문신제는 독서당의 취지를 계승한 것으로 본다.[9)]

이처럼 사가독서로 시작된 독서당은 처음엔 산사에서 시작되어 독서당을 건립하여 독자적인 독서기관으로 정착하였다. 독서당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료는 동호독서당의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림으로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이다. 독서당계회도는 비단에 먹과 채색을 써서 산수를 배경으로 하여 독서당과 독서당이 위치한 두모포(豆毛浦)[10)] 일대의 한강을 자세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여러 건물과 누를 비롯한 독서당의 시설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부감법을 써서 표현하여 회화사뿐만 아니라 건축사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독서당의 건물 배치와 구성, 건축 세부 요소와 조경의 실태 등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다. 독서당계회도는 작자미상으로 102×57㎝의 크기의 그림으로 보물 제867호로 지정되었으며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독서당계회도'는 조선 전기 계회도로는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소장품으로 초기 국가 관영 연구시설인 독서당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료이다.[11)]

독서당의 옛모습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건물 형태가 정확한 모습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작자미상의 독서당계회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원한다면 역사적 고찰이 더 필요하다. 서울 주위의 한강을 경강이라고 불렀는데 동호(동강), 남호(용산강), 서호(서강)으로 구분하였고, 호수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호'를 붙였다. 동호 중에서도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곳에 동호독서당을 지었는데, 실제 독서당을 답사해 본 결과 아파트에 의해 일부 가려있지만 전체적으로 동호독서당 부근의 경관이 가장 좋다.

---

9) 서범종, 앞의 글, 45-47쪽.
허겸, 「독서당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81쪽.

10) 서울 성동구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포구. 두무개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두모포이다.

11)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상기, 「독서당(호당)고」, 『진단학보』, 1955, 17, 31쪽.
서범종, 「조선시대 독서당의 교육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09쪽.
허겸, 앞의 글, 2-3쪽.

〈그림 1〉 독서당계회도
작자미상, 102×57cm, 보물 제867호,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2. 독서당 선행연구 고찰

독서당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적 관점, 교육적 관점, 건축적 관점, 미술사적 관점, 도서관적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독서당 연구는 1955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매우 활발하지는 않다. 독서당의 최초 연구로 알려지고 있는 김상기의 '독서당(호당)고'[12]에 이어, 김상기의 '독서당(호당)의 유래와 변천'[13]에서 독서당의 의미를 처음으로 밝힘으로써 이후 독서당 관

12) 김상기, 위의 글.

13) 김상기, 「독서당(호당)의 유래와 변천」, 『향토서울』,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제4호, 1958.

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현희의 '조선왕조 양반관료시대의 독서당고; 그 도서관적 기능과 인재등용예'[14]는 독서당을 도서관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김선우의 '독서당의 유래와 그 위치에 관한 고증'[15]에서는 독서당의 설립 목적과 독서당의 위치를 고찰하였으며, 김중권은 선조와 광해군 시대의 사가독서제와 독서당의 의미[16]를 연구했고, 이종묵은 한문학 관점에서 독서당의 성격과 16세기 동호독서당을 연구했다.[17] 박은순과 허겸은 '독서당계회도'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건축사적 관점에서 독서당을 연구했으며,[18] 교육적 관점에서 독서당을 고찰한 선행연구도 있었는데 서범종, 오성탁, 최선경의 연구들이다.[19]

독서당의 문화사적 의미와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즉 선행연구들은 독서당 관련하여 역사적, 교육적, 건축적, 미술사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독서문화 관점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를 시작으로 독서문화 관점에서의 독서당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

---

14) 이현희, 「조선왕조 양반관료시대의 독서당고; 그 도서관적 기능과 인재등용예」, 『연구논문집』, 4 · 5,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성신여자인문과학연구소, 1972, 67-99쪽.

15) 김선우, 「독서당의 유래와 그 위치에 관한 고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6) 김중권, 「광해군조의 사가독서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2권, 2001, 231-262.
김중권, 「선조조의 사가독서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1권, 2001, 123-158쪽.
김중권, 「16세기 한강에서의 연회와 시회」, 『한국시가연구』, 9권, 2001, 5-28쪽.

17) 이종묵, 「조선시대 서울의 문화공간과 한시; 사가독서제와 독서당에서의 문학 활동」, 『한국한시연구』, 8권, 2000, 5-44쪽.
이종묵, 「윤현과 16세기 동호독서당」, 『한국문화』, 70권 70호, 2015, 123-159쪽.

18) 박은순, 「16세기 독서당계회도 연구」, 『미술사학연구』, 212호, 1996.
허겸, 앞의 글.

19) 서범종, 「조선시대 독서당의 교육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오성탁, 「사가독서제도가 교원 파견연수제에 주는 정책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최선경, 「조선시대 사가독서제를 모델로 한 대학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 『사고와 표현』, 11권 1호, 2018, 93-124쪽.

이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이와 같이 독서당 선행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독서당의 독서문화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에서 영조까지 약 340년간 존속했던 독서전문기관으로 왕이 국정운영을 위한 철학으로서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둘째, 독서당은 좋은 책이 모이는 도서관의 기능을 했다. 셋째, 인재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장소성을 가졌다. 넷째, 독서당에서 책을 읽는 인재들이 책을 집필하여 당시의 지식문화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다섯째, 국가가 인재양성을 중요시 했다는 점에서 독서당의 의미가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급제를 통과한 관료 중심이라는 점에서 독서당 기능의 확장성이 부족했다.

〈표 1〉 독서당 선행 연구

구분	독서당 선행 연구
역사적 관점	독서당(호당) 고 / 김상기 / 1955 독서당(호당)의 유래와 변천 / 김상기 / 1958 독서당의 유래와 그 위치에 관한 고증 / 김선우 / 1988 광해군조의 사가독서에 관한 연구 / 김중권 / 2001 선조조의 사가독서에 관한 연구 / 김중권 / 2001 16세기 한강에서의 연회와 시회 / 김중권 / 2001 윤현과 16세기 동호독서당 / 이종묵 / 2015
교육적 관점	조선시대 독서당의 교육학적 연구 / 서범종 / 2004 사가독서제가 교원 파견연수제에 주는 정책적 함의 / 오성탁 / 2013 조선시대 사가독서제를 모델로 한 대학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 / 최선경 / 2018
건축적 관점	독서당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독서당계회도(1570년)를 중심으로 / 허겸 / 2003 조선 전기 독서당의 건축 양식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한재수 / 2012
미술사적 관점	16세기 독서당계회도 연구 / 박은순 / 1996
도서관적 관점	한국도서관사 연구초 / 박희영 / 1962 조선왕조시대의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 이현희 / 1969 조선왕조 양반관료시대의 독서당고; 그 도서관적 기능과 인재등용 / 이현희 / 1962

III. 현장 답사를 통해 본 독서당의 의미 고찰

연구를 진행하면서 독서당이 실제 위치한 현장을 답사하여 독서당이 어떤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지, 독서당의 계승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앞에서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세종부터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한 독서당으로 사용했던 곳은 장의사, 진관사, 남호독서당, 정업원, 동호독서당, 한강별영이다.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은 진관사이지만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 중에 소실되어 재건한 절이다. 독서당의 옛모습은 실제로 현존하지 않으며 독서당이 있었던 터를 알리는 표석만 남아 있다.

장의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서울세검정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던 절이었는데 현재는 당간지주만 남아 있다. 이 학교의 도서관 이름을 독서당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세검정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에는 2019년 5월 현재 19,803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독서당의 이름에 걸맞도록 더 많은 책을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남호독서당은 성종이 서울 용산강 북쪽 언덕에 조성한 독서당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래는 그곳에 폐지된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을 고쳐 만든 것이다. 남호당 혹은 용호당이라 불렀다. 서울 청암동 한강변에 남호당이 있었는데 1989년에 세워진 독서당터 표석은 청암자이아파트 103동 뒤편의 버스정류장 보도에 있다.[20] 독서당터(讀書堂址) 표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조선시대 뛰어난 선비들에게 특별 말미를 주어 글을 읽게 한 독서당 터. 일명 남호당(南湖堂)이라 하였다.” 남호당 입지는 이제는 복개된 만초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곳에서 멀지 않아 전망이 뛰어나다.

독서당의 현장답사를 위해 걷다보면 누각(樓閣)이 있었다는 표석을 발견할 수 있다. 『동국여지비고』에 의하면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20) 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암동 168-8이다.

용산강 북쪽 언덕에 담담정(淡淡亭)을 지어 서적 1만 권을 저장하여 선비들을 모아 밤새도록 등불을 밝히고 담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현재는 서울 마포동의 벽산빌라가 자리하고 있다. 세조가 계유정난으로 집권하고 안평대군이 교동도로 유배되어 생을 마친 후에 담담정은 신숙주의 별장이 되었다. 그만큼 한강 조망이 좋다는 이야기다. 누각 터에는 나중에 마포장(麻浦莊)이 지어져 광복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처로 삼기도 했다. 벽산빌라에서 한강 쪽으로 비탈길을 내려오면 별영창과 읍청루 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석이 있다. 별영창은 훈련도감 군병의 급료를 지급하였던 곳이고 읍청루는 별영창에 딸린 누각이었다. 이러한 누각들은 추후 독서당을 복원하고 독서당길을 만들 때 누각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호독서당의 위치는 문헌연구를 고찰해 보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옥수극동아파트 단지이다. 현재 이 아파트 정문 입구의 오른편에 '독서당터' 비석이 세워져 있다. '독서당터' 안내에 는 "조선시대 뛰어난 선비들에게 특별 말미를 주어 글을 읽게 한 독서당 터. 일명 동호당(東湖堂)이라 하였다."라고 써 있다. 비석 옆에는 책이 펼쳐진 형태로 독서당터(讀書堂址)에 대한 설명이 있다. 왼쪽에는 한글로, 오른쪽에는 영어로 쓰여 있다. 동호독서당터 비석문은 다음과 같다.

> "독서당터는 조선시대 때 국가의 주요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젊은 학자들을 사가독서하게 하던 독서당이 있었던 곳이다. 일명 호당이라 하는데 원래 독서당은 세종 8년(1426년) 집현전 학자들에게 휴가를 주어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한 것이 그 효시였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기까지 약 70년 동안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호당의 권위는 상당 하였으며 그 중에는 율곡 이이도 이곳에서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월과(月課)로 제술(製述)하였다 전한다. 현재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구청에서는 매년 호당을 선발하여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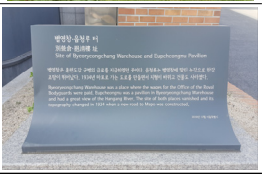
독서당이 있었던 서울의 지자체들이 독서문화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독서당이 있었던 서울 은평구(진관사), 서울 종로구(장의사), 서울 용산구(남호독서당), 서울 동대문구(정업원), 서울 종로구 숭인동(정업원), 서울 성동구(동호독서당), 서울 마포구(한강별영)인데, 이중 성동구에서만 그 취지를 살리고 있다.[21] 서울 성동구에서는 2017년 5월 평생학습관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를 개관하면서 독서당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22] 그리고 독서당공원이나 구립독서당어린이집처럼 독서당 이름만 붙여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각 지역에서도 독서당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 지역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독서문화의 정신을 이어받고 일상 속에서 독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독서문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

21) 시민일보(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854#rs) 2016년 10월 13일자에 따르면, '성동구, 지역역사 계승 독서당 건립'이라는 제목으로 "성동구(당시 구청장 정원오)의 금호유수지에 2017년 상반기까지 독서당 인문아카데미가 들어설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기사에서 성동구 관계자는 구 관계자는 "금호유수지 주변은 조선시대 '동호독서당'이 있었던 곳으로, 동호독서당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될 때까지 약 75년간 학문연구와 도서 열람 기능을 수행했다.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는 그 역사성을 계승한다는 점에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22) 홈페이지의 소개 코너에서는 "2017년 7월 개관한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평생학습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인문학과 진로교육, 생활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문화복합시설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표 2〉 독서당의 위치와 현재 모습[23)]

독서당	운영 시기	위치	현재 모습
장의사	세종24년 사가독서 장소로 활용, 세조때 사가독서 폐지 후 성종7년부터 독서당으로 정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9길 1, 서울세검정초등학교	
진관사	세종24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진관사	
남호 독서당	성종22년 건립 -연산군10년까지 운영 후 갑자사화 때 홍문관과 함께 독서당 폐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암동 168-8	
정업원 24)	중종	서울 종로구 숭인동 산3번지	
동호 독서당	중종12년 건립 - 임진왜란 때 전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187, 옥수동극동아파트 정문 오른편.	
한강별영	광해군 즉위년 -영조	서울 마포동 벽산빌라.	

IV. 독서당의 활용 방안

유동환은 역사문화를 보존 중심의 구축 개념에서 활용 중심의 서비스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역사문화 보전과 활용을 위한 발전 단계를 1단계 '보전적 활용', 2단계 '보존과 활용의 조화', 3단계 '적극적 활용', 4단계 '퓨전 활용'으로 보았다.[25]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독서당은 동호독서당이 있었던 서울 성동구에서 그 취지를 이어받아 1단계 '보전적 활용' 의 과정에 있으며, 향후 독서당이 존재했던 지역들이 역사문화를 보존하는 적극적인 연구 및 활동들이 이어져야 한다. 국가독서기관인 독서당에 대한 다양한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독서당터 복원과 홍보 등이 매우 부실하다. 근대화가 시작되고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남호독서당과 독호독서당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거나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화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키고 적극 활용해야 할 전통문화 역사에 대한 관심과 활용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독서당이라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연구와 더불어 대중적인 요소인 스토리텔링을 살려 문화콘텐츠로 되살릴 필요가 있다. 김기덕은 전통문화 콘텐츠의 대중화와 관련 연구에서, 전문연구 및 대중적 성과물의 바탕 위에서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통해 재창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26]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독서당의 의미와 가치, 인재 양성, 독서 프로그램, 저술문화

---

23) 장의사는 당간지주만 남아 있으며, 독서당 역할을 한 진관사는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재건되었는데 지금의 주차장이 당시 독서당이 있었던 자리로 추측하고 있다. 남호독서당과 동호독서당도 표석으로 독서당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다. 필자 김민주 사진 촬영.

24)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21,00050000,11&pageNo=1_1_1_0 (검색일 2020년 8월 22일)

25) 유동환, 「인문지식 기반 창작소재 서비스 모델 연구」, 『인문콘텐츠』, 제36호, 2015, 23-26쪽.

26) 김기덕, 『한국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145-146쪽.

등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독서당의 역사적 스토리, 독서당에서 공부한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 독서당에서 저술한 책에 대한 스토리, 독서당 및 독서당로의 장소 스토리, 독서당로 골목길콘텐츠 등을 전통성과 현대성을 접목한 독서문화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 독서당이 존재했던 지역에서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지역문화적 가치를 개발하는 기준은 지자체 주도형, 민간 주도형, 지자체와 민간의 공동주도형이 있으며, 지역문화적 가치의 특징에 따라서 축제 선도형, 테마파크 선도형, 축제와 테마파크의 병행 선도형, 전시 선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원천자료의 특징에 따라서 인물 활용형, 무형문화재 활용형, 유형문화재 활용형, 문화유형 활용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27] 이는 향후 독서당을 복원하고 계승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한편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등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통문화 콘텐츠들이 문화적 의미나 미적 태도와 관계 없이 구색 맞추기가 되는 이유는 삶과 현실의 문제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28]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독서당을 계승 발전시킬 때 유념해야 할 점이다. 즉 독서당을 전통문화 콘텐츠로 복원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독서당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사적 의미를 주변 환경 맥락까지 함께 살펴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보다 풍부한 활용 방안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현재 '독서당로'가 맛집 중심의 거리에서 벗어나 독서문화의 철학과 정신이 구현되는 읽기 문화의 중심으로 바꿀 필요성도 있다.

현재 독서당의 역사적 의미를 받아들여 활용하고 있는 곳은 2016년에 유네스코 교육 지자체로 인정을 받은 서울 성동구의 사례가 있다. 독서당의 역사적 취지를 계승하여 설립한 성동구 평생학습관(서울특별시 성

---

27) 김진형, 「지자체 문화콘텐츠의 멀티유즈화 현상과 지역문화적 가치」, 『인문콘텐츠』, 제32호, 2014, 172-176쪽.

28) 이정진, 「전통문화콘텐츠의 이벤트 활용 연구」, 『인문콘텐츠』, 제39호, 2015, 161-168쪽.

동구 금호로 30)은 '독서당 인문아카데미'로 이름을 지었다. 또한 교육특구로 지정된 서울시 성동구는 '유네스코 지정 글로벌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동호동서당이 성종 시대에 건립되어 독서당으로 정착되었다는 역사를 반영하여 독서당의 독서문화사적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도 의미 있는 독서문화 사례로 제공될 것이다.

동호독서당이 있는 지역은 예전부터 대보름날 달맞이를 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부분에 저자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쓸려나가 낮은 모래섬으로 바뀌었고, 1970년대 한강 개발 과정에서 물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 지역을 예전부터 동호라 불러서 다리 이름도 동호대교다. 서쪽이 동호대교라면 동쪽이 성수대교다. 독서당이 복원되면 이 공간에 꼭 필요한 시설은 우선 경관이 좋은 정자가 있어야 할 것이고, 도서관, 토론방, 교육관, 카페, 식당이 필요하다. 운영할 프로그램에는 휴가를 얻은 공무원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한 독서클럽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독서클럽은 최근 들어 출판사, 서점, 도서관은 물론이고 독서클럽 전문회사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독서클럽은 책 구매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독서로 연결되어 개인의 독서 습관을 높이고 지식 축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독서당의 의미를 복원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제언을 몇 가지 하고자 한다. 첫째, 독서당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복원과 문화사적 복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역사적 복원은 실제 건물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재현하여 복원한다는 일은 쉽지 않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호독서당을 알 수 있는 '독서당계회도'를 디지털 기술 및 3D 기술 등으로 복원하여 독서당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독서당의 특징은 책을 읽으면서 멋진 한강의 풍광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독서당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일어난 곳임을 감안할 때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독서당을 복원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독서당로 체험길을 기획하여 사람들이 독서당로를 실제로 걸으면서 독서당에 대한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는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길 이름으로 독서당로가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특이하다. 전 세계적으로 독서당길은 우리나라뿐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길 이름을 이용한 행사는 전무하다. 따라서 독서당로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려 사람들이 독서당로에 오도록 하고 독서 붐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책 읽는 길'이라는 테마 길을 만들어 걷기와 독서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2년 '독서의 해'를 맞이해 중앙대학교 남태우 교수의 안내로 진관사(은평구 진관관동) – 장의사(종로구 신영동 서울세검정초등학교) – 동호독서당(성동구 옥수동)의 순서로 현장답사를 시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길의 역사를 연구한 유영초는 길에는 인간이 자연을 문화화하면서 생성된 생물학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 기능이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29] 요즘 골목길 걷기가 붐이니 독서당로를 따라 걷는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홍보하고 독서동아리 구성원들이 독서당로를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독서당로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역 교차로에서 시작하여 성동구 응봉사거리까지 4.2km에 이른다. 이 길에는 아파트단지, 대사관, 카페들이 들어서 있다. 물론 멋진 한강도 조망할 수 있다. 독서당로의 한강을 따라 정자가 있었는데 동호 근처에만 18개가 있을 정도로 풍광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강변에 원형대로 현존하는 정자는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뿐이다.[30] 독서당로를 걷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정자에서 독서토론을 하면서 사람들과 담소

29) 유영초, 「길 문화콘텐츠의 생태학적 해석 : 경기옛길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15호, 2019, 7-39쪽.

30)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서울의 누정』, 서울특별시, 2012, 230-245쪽.

를 나눌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겠다.

현장의 여러 명소를 감안하여 동호독서당 걷기 코스를 만들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옥수역(3호선, 경의중앙선)-두뭇개나루터-동빙고터-쌍호정터-독서당터-구립독서당어린이집-옥수사거리-달맞이근린공원-독서당인문아카데미-금호사거리-독서당공원-응봉산정(응봉산 해맞이 명소 팔각정)-응봉역(경의중앙선)이다. 그리고 남호독서당 걷기 코스는 마포역(5호선)-복사꽃어린이공원-담담정터-별영창 · 읍정루터-독서당터-청암동 부군당-마포어린이공원-석불사-마포역으로 구성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책문화 주체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31] 현재 교육특구인 성동구는 '유네스코 지정 글로벌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독서당로 주변에는 옥정중학교, 금옥초등학교, 옥수초등학교, 옥정초등학교가 있으니 이 학교들이 서로 연계하여 독서당로를 홍보하면 학생들의 독서문화 교육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옥정중학교와 금옥초등학교가 독서당로에 바로 접해 있다.

넷째, 독서당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장성군 평생교육센터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新청백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사가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독서를 통해 몸을 가다듬고, 뜻을 옳게 하며, 마음을 바로잡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성군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면 유익한 프로그램일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사가독서 프로그램도 기획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이 용산구청이나 성동구청과 협업하여 여러 독서문화 행사를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동구는 평생학습관을 설립 후 2017년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를 개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인문, 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독서당의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인데 성동구

31) 정윤희,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의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 비교연구」, 『문화콘텐츠연구』, 69-104쪽, 2019. 참고.

와 용산구 그리고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하여 독서당의 본 모습을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독서당로'의 이름에 걸맞게 독서문화를 이어가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활동들이 기획되어 실행해야 한다.

다섯째, 독서당과 독서당로를 홍보해야 한다. 행인이나 운전자가 독서당로를 지나갈 때에 이 길이 독서당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여러 시설물이나 플래카드를 설치해 놓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두 지방자치단체는 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에 독서당로에 대한 기사를 실어 홍보하면 좋을 것이다.

여섯째, 독서당에서 공부한 조선시대 인재들의 스토리를 출판하여 아카이브화 하고 이 책을 많은 독자들이 읽음으로써 깊이 있는 독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가독서제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는 세종 8년(1426년)부터 영조 29년(1773년)까지 347년 동안 모두 320명이 선발되었다. 모두 뛰어난 인재들이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삼문, 신숙주, 하위지, 박팽년, 최항, 박원형, 유성원, 조광조, 강희맹, 노사신, 이개, 권채, 최부, 김일손, 이수광, 이산해, 이황, 이이, 주세붕, 정철, 유성룡, 정약용이 모두 해당된다. 320명을 시리즈로 소개하면서 독서당로를 함께 홍보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표 3〉 독서당을 계승한 사례

주관	내용
성동구 평생학습관	2017년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개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제공.
국립중앙도서관	2012년 '독서의 해'를 맞이해 중앙대학교 남태우 교수의 안내로 진관사(은평구 진관관동) – 장의사(종로구 신영동 서울세검정초등학교) – 동호독서당(성동구 옥수동)의 순서로 현장 답사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사가독서 체험 프로그램 '新청백리 프로그램' 운영

V. 결 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독서당의 문화사적 의미를 문헌연구와 현장 답사를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독서당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현장 답사를 통하여 독서당의 현재를 파악해 봄으로써 독서당의 현대적 계승 방안을 살펴보았다.

독서당을 연구해 온 선행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독서당의 역사적 의미와 우리나라의 독서문화에 시사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에서 영조까지 약 340년간 존속했던 독서전문기관으로 왕이 국정운영을 위한 철학으로서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점이다. 둘째, 독서당은 좋은 책이 모이는 도서관의 기능을 했다는 점이다. 셋째, 인재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장소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넷째, 독서당에서 책을 읽는 인재들이 책을 집필하여 당시의 지식문화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다섯째, 국가가 인재양성을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독서당의 역사적 의미가 중요하지만 관료 중심이라는 점에서 독서당 기능의 확장성이 부족했다.

독서당이 있었던 현장 답사를 통해 독서당의 현재 위상을 점검해 보았다. 독서당의 복원은 없었으며, 독서당의 위치에 표석을 세웠지만 그 역사적 의미와 독서문화 정신을 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표석만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독서당의 역사적 · 문화적 의미를 복원하여 지역민들이 독서문화에 대한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독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토건 개발로 인해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우리의 전통문화 역사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문화적 유산을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32] 독서당의 역사적 의미의 복원과

---

32) 이와 관련하여 이병민의 연구 참고.
「창조경제시대 창조적 환경과 지역발전의 의미」, 『문화콘텐츠연구』, 2013, 7-31쪽.

독서당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독서이벤트로 독서의 명제를 주장하기보다는 독서가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향후 독서당에 대한 깊이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척되어야 한다. 독서당의 인재 선발 방식과 프로그램, 독서당에서 공부한 인재들의 독서와 저술 분석 등은 연구과제로 남겨 놓는다.

참고문헌

김기덕, 『한국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07.

김기덕 · 정윤희, 「문화융성과 출판」, 『문화콘텐츠연구』, 제3호, 2013.

김민주, 『나는 도서관에서 교양을 읽는다』, 카모마일북스, 2019.

김상기, 「독서당(호당)고」, 『진단학보』, 17호, 1955.

_____, 「독서당(호당)의 유래와 변천」, 『향토서울』, 4권, 서울특별시역사편찬위원회, 1958.

김선우, 「독서당의 유래와 그 위치에 관한 고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김중권, 「광해군조의 사가독서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2권, 2001.

_____, 「선조조의 사가독서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1권, 2001.

_____, 「16세기 한강에서의 연회와 시회」, 『한국시가연구』, 9권, 2001.

김진형, 「지자체 문화콘텐츠의 멀티유즈화 현상과 지역문화적 가치」, 『인문콘텐츠』, 제32호, 2014.

박은순, 「16세기 독서당계회도 연구」, 『미술사학연구』, 212호, 1996.

서범종, 「조선시대 독서당의 교육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서울의 누정』, 2012.

오성탁, 「사가독서제도가 교원 파견연수제에 주는 정책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유동환, 「인문지식 기반 창작소재 서비스 모델 연구」, 『인문콘텐츠』, 제36호, 2015.

유영초, 「길 문화콘텐츠의 생태학적 해석: 경기옛길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15호, 2019.

이병민, 「창조경제시대 창조적 환경과 지역발전의 의미」, 『문화콘텐츠연구』, 2013.

이정진, 「전통문화콘텐츠의 이벤트 활용 연구」, 『인문콘텐츠』, 제39호, 2015.
이종묵, 「조선시대 서울의 문화공간과 한시; 사가독서제와 독서당에서의 문학활동」, 『한국한시연구』, 8호, 2000.
_____, 「윤현과 16세기 동호독서당」, 『한국문화』, 70권 70호, 2015.
이현희, 「조선왕조 양반관료시대의 독서당고 ; 그 도서관적 기능과 인재등용예」, 『연구논문집』, 4 · 5,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성신여자인문과학연구소, 1972.
_____, 「조선왕조시대의 도서관 연구; 독서당에 대하여」, 『도서관』, 상 · 하, 국립중앙도서관, 1973.
장덕삼, 「조선전기 독서당에 관한 연구」, 『원광교육』, 6호, 1994.
정윤희,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의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 비교연구」, 『문화콘텐츠연구』, 69-104쪽, 2019.
_____, 「출판 · 독서생태계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한 책문화생태계 모델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최선경, 「조선시대 사가독서제를 모델로 한 대학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 『사고와 표현』11권 1호, 2018.
허 겸, 「독서당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19년 8월 1일)
나무위키(https://namu.wiki/w/%EB%8F%85%EC%84%9C%EB%8B%B-9%EB%A1%9C), (검색일 2019년 8월 1일).
성동구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http://dokseodang.sd.go.kr/home.php?menu_id=thanks), (검색일 2019년 8월 12일).
수요미식회(http://program.tving.com/olive/olivewedfoodtalk) (검색일 2019년 8월 2일)
서울 세검정초등학교(http://segumjung.sen.es.kr/index.do) (검색일 2020년 6월 1일)

시민일보(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854#rs) (검색일 2019년 8월 2일).

진관사(http://www.jinkwansa.org/html/?pCode=504) (검색일 2020년 7월 14일)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21,00050000,11&pageNo=1_1_1_0 (검색일 2020년 8월 22일)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pertation of 'Dokseodng' in the Perspective of Reading Culture History

Jeong, Yun hee · Kim, Min joo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meaning and utilization plan of 'Dokseodang', which fostered talents from the Joseon Dynasty. To this end,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Dokseodang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o find out the status of the existing Dokseodang through field trips, and to suggest ways to use it.

There is an area where the origin of the Dokseodang, which fostered talent from the Joseon Dynasty, remains as a road name. This is 'Dokseodang-ro', which runs from Hannam Station Intersection in Hannam-dong, Yongsan- gu, Seoul to Eungbong 4-way Intersection in Haengdang-dong, Seongdong- gu. The road name of Dokseodang-ro comes from 'Dongho Dokseodang' located in Dumori, Duseong-myeon (currently Oksu-dong, Seongdong-gu, Seoul).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previous study of the Dokseodang, we found some implications. As the institution that lasted for about 340 years from Sejong to Yeongjo, the king announced the importance of reading as a philosophy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 and actively practiced it. The fact that the Dokseodang functioned as a library where good books gathered, and that talented people ha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reading and writing in the best environment. It is that talented people who read

books at Dokseodang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knowledge culture of the time by writing books, and that the country placed great importance on nurturing excellent talent.

Through the field trip where Dokseodang is actually located, we looked at how the Dokseodang is being preserved and how the succession of Dokseodang is progressing. It is unfortunate that the local governments that had the Dongseodang are not succeeding and developing the spirit of reading culture. Seoul's Eunpyeong-gu (Jingwansa), Jongno-gu (Jangui-sa), Yongsan-gu (Namho Dokdang), and Seongdong-gu (Dongho-Dangseodang) in Seoul, where the Dangseodang was used, only in Seongdong-gu. At present, the appearance of Dokseodang remains only the name of Dokseodang-ro, and the unique function and meaning of Dokseodang has disappeare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local people can share their minds about reading culture by using the historical meaning of Dokseodang. In particular, as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s, etc., have led to the development of our apartments, we must continue to seek to connect cultural heritage with quality of life in that we are not developing our traditional cultural history properly.

Key Words : Dokseodang, Dokseodang-ro, reading culture, local culture, traditional culture contents, book culture ecosystem